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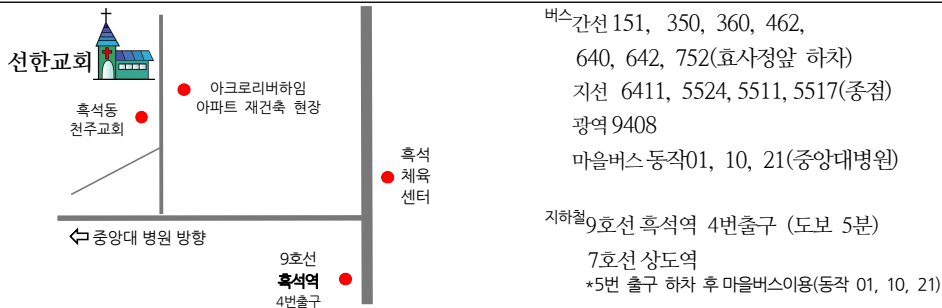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b>주 일 예 배</b>   | 1부 주일 오전 9:30  |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
| <b>수 요 예 배</b>   | 수요일 저녁 7:30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
| <b>금 요 기 도 회</b> | 금요일 저녁 8:30    | 청 소 년 부                |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
| <b>새 벽 예 배</b>   | 월-금요일 새벽 5:30  | 청 년 부                  | 오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
|                  | *월삭새벽예배 6:00   |                        | 에 스 더 회 오후 1:00         |
| <b>셀 가족 모임</b>   | 셀별로 정한 시간      |                        |                         |

## 섬기는 분들

|              |                    |                  |                      |
|--------------|--------------------|------------------|----------------------|
| <b>사 역 자</b> | 담임목사 임 춘 배         | <b>파 송 선 교 사</b> | 강성규 (러시아)            |
|              | 전임전도사 김 진 만        | <b>협 력 선 교 사</b> | 양병순 (카자흐스탄)          |
|              | 전임전도사 권 인 혁        |                  | 이금주 (M국)             |
|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b>국 내 선 교 사</b> | 오인숙                  |
| <b>장 로</b>   | <b>조 윤 익</b> (집사장) | <b>관 리 장 로</b>   | 손석규                  |
|              | 김 대 희              |                  |                      |
|              | 박 희 태              | <b>500/50 교회</b>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유 신 웅              |                  | (2호) 세종 선한교회         |
|              | 한 배 선              |                  | 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              |           |                 |
|--------------|-----------|-----------------|
|              | 교회에 대하여 :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 <b>삶의 방식</b> | 개인에 대하여 :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 (빌 4:1-7)    | 성도에 대하여 :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              | 문제에 대하여 :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암송구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6)



기독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 오 전<br>예 배 | 오전 9:30      |         |                   |
|            | 오전 11:00     |         |                   |
|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 기            | 원       | 인도자               |
|            | 찬            | 양 과 경 배 | 170장 (통일찬송가 16장)  |
|            | 교            | 독 문     | 교독문 3번(시편 4편)     |
|            | 찬            | 양 과 경 배 | 305장 (통일찬송가 405장) |
|            | 예            | 배 기 도   | 한배선 장로            |
|            | 찬            | 양       | 드림성가대             |
|            | 말            | 씀 봉 독   | 마태복음 11장 : 16~22절 |
|            | 설            | 교       | 말씀에 반응하라 (임춘배 목사) |
|            | 헌            | 금 드 림   |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
|            | 환            |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 파            | 송 의 노 래 | 나는 믿네             |
| 축          | 도            | 임춘배 목사  |                   |
| 송          | 영            | 드림성가대   |                   |
| 성          | 도 의 교 제      | 다함께     |                   |

|                  |         |  |            |  |              |                                 |
|------------------|---------|--|------------|--|--------------|---------------------------------|
| 수<br>요<br>예<br>배 | 오후 7:30 |  | 예배장소 : 본 당 |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말 씬 봉 독 |  |            |  |              | 이스라엘 최고 경영자 다윗 (사무엘하 8장) 임춘배 목사 |

|        |           |                                                                               |
|--------|-----------|-------------------------------------------------------------------------------|
| 교회소식   |           |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 1. 대   | 심 방       | 대심방을 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br>게시판 일정을 보시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부   | 서 사 역 조 정 | 오늘 예배 후 / 각 자치회 회장 및 교회학교 부장 / 안디옥실                                           |
| 3. 월   | 삭 새 벽 예 배 | 2월 1일(목) 6:00에 월삭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
| 4. 총   | 동 원       | 2월 2일(금) 오후 8:30에 총동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
| 5. 성   | 찬 식       | 2월 4일(주일)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
| 6. 기부금 | 영수증 신청    |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7. 떡   | 제 공       | 이혜숙 자매                                                                        |
| 8. 중   | 국 어 예 배   | 시간 : 주일 오후 4시<br>장소 : 안디옥실                                                    |
| 9. 매   | 일 성 경 강 론 |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br>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 10. 예  | 배 준 비     |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안 내 및 정 리 |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br>오늘은 분당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br>다음 주일은 안산셀입니다. |

|                                                                                                           |         |         |         |         |          |     |
|-----------------------------------------------------------------------------------------------------------|---------|---------|---------|---------|----------|-----|
| 건축헌금 입금계좌<br>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br>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         |         |         |         |          |     |
| 2017년 성경강론 범위                                                                                             |         |         |         |         |          |     |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2/3 |
|                                                                                                           | 사무엘하 6장 | 사무엘하 7장 | 사무엘하 8장 | 사무엘하 9장 | 사무엘하 10장 |     |
|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         |         |         |         |          |     |

|              |                                                                                                                               |
|--------------|-------------------------------------------------------------------------------------------------------------------------------|
| 한주간의<br>기도제목 |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br>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br>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 가정예배

#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찬송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통 464장)

본문 : 요한일서 2장 15~17절

말씀 :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어리석음, 우상숭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갈 5:24, 6:14).

영원한 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든 자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할 때 어느새 정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과 롯처럼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나아가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러운 성도로 추락합니다.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고 원수의 포로가 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쓰라린 비극을 맛보기 전에 안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치러 구원 받은 우리가 자신의 정욕과 세상을 향한 탐심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또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도록 거듭난 자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갑시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 은혜의 말씀

제목

말씀에 반응하라 (마11:16-22)

서론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 1. 반응이 없는 사람들

- (1) 예수님의 비유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음)
- (2) 왜 반응하지 않는가?
- (3) 회개치 않음에 대한 경고

본론

### 2. 교훈

- (1) 거부하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자.
- (2)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 (3) 뜨거운 영성을 구하자.

결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예배 섬김이

| 오늘 섬기실 분 |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예배기도     | 한배선 장로      | 유산웅 장로      |
| 헌 금 위 원  |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
| 안 내      | 분당셀         | 안산셀         |

| 매일 성경 강독       |                                                                                                                                                                                                                                                                                                                                                                                                                          | 법궤의 입성과 춤추는 왕 | 날짜 : 1월 29일 |
|----------------|--------------------------------------------------------------------------------------------------------------------------------------------------------------------------------------------------------------------------------------------------------------------------------------------------------------------------------------------------------------------------------------------------------------------------|---------------|-------------|
| 찬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통일 찬송가 404장)                                                                                                                                                                                                                                                                                                                                                                                      |               |             |
| 통독             | 사무엘하 6장                                                                                                                                                                                                                                                                                                                                                                                                                  |               |             |
| 본문 내용          |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으로 궤를 붙잡고,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십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며 궤를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나, 그의 집에 복 주심을 보고 다시 기쁨으로 궤를 옮겨 옵니다. 여호와와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춤을 춥니다. 이를 본 미갈은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미갈은 가족에게 돌아온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미갈을 저주합니다. 미갈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               |             |
| 생각해보기          |                                                                                                                                                                                                                                                                                                                                                                                                                          |               |             |
| 1              | 다윗의 언약궤 운반<br>(1) 다윗이 기랴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 신정 국가 건설의 종교적 기틀을 다지고자 함<br>(2) 첫 번째 시도는 도중에 운반 책임자 옷사가 법궤에 손을 대 죽임을 당하게 되어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됨<br>(3) 3개월후 재시도가 성공하여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됨<br>(4)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               |             |
| 핵심 단어          | 6:6 소들이 뛰므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 한편 궤가 움직일 때에 옷사가 취한 행동을 본문은 ‘손을 들어’ 로 표현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이실라흐’는 ‘보내다’, ‘내뺐다’ 라는 뜻의 ‘찰라흐’ 동사의 미완료형이다. 즉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궤를 보고 급하게 손을 내뺐어 붙잡은 것을 말한다. 이때 ‘옷사’ 라는 이름의 뜻이 ‘힘’ 이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사건의 문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어쩌면 자기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대로 옷사가 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서 저자가 그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고 인간적 능력을 앞세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셀 모임 나눔지   |                                                                                                                                                                                                                                                                                                                                                                                                                                                                                                                                                                                                                                                                                                                                                              | “사랑, 복음의 모든 것” |
|------------|--------------------------------------------------------------------------------------------------------------------------------------------------------------------------------------------------------------------------------------------------------------------------------------------------------------------------------------------------------------------------------------------------------------------------------------------------------------------------------------------------------------------------------------------------------------------------------------------------------------------------------------------------------------------------------------------------------------------------------------------------------------|----------------|
| 찬양과 기도     | 날 사랑하신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 이야기 속으로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1182~1226)는 포목상을 하는 이탈리아 부유층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화려한 옷을 즐겨 입고, 공명심에서 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적도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를 순례하고 돌아와 아시시의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프란치스코야, 너는 무너져 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자신의 상속권은 물론 부친과의 관계마저 포기할 것을 선언하며, 완전한 청빈을 실천하는 수도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맨발에 헤진 옷을 입고 다니며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종용했는데, 삶과 일치하는 그의 메시지는 수많은 유력자들과 귀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같은 길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가 쓴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                |
| 말씀 나누기     | 고린도전서 13:1~7                                                                                                                                                                                                                                                                                                                                                                                                                                                                                                                                                                                                                                                                                                                                                 |                |
| 묵상포인트      | 어떠한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섬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행한 모든 행위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 없음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라지지만, ‘믿음·소망·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사역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일 것입니다.                                                                                                                                                                                                                                                                                                                                                                                                                              |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 관찰과 묵상     |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할 때 결과가 어떠한가요?(1~3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적용하기       | 은사를 사용해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나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사랑, 의무감, 동정심, 명예욕, 기복 추구 등) 나누어 보세요.                                                                                                                                                                                                                                                                                                                                                                                                                                                                                                                                                                                                                                                                                      |                |
| 함께 기도하기    |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에 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오해나 핍박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사랑 없는 은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호주소서.                                                                                                                                                                                                                                                                                                                                                                                                                                                                                                                                                                                                                                              |                |
| 나의 기도문     |                                                                                                                                                                                                                                                                                                                                                                                                                                                                                                                                                                                                                                                                                                                                                              |                |
| 기도 (중보기도)  |                                                                                                                                                                                                                                                                                                                                                                                                                                                                                                                                                                                                                                                                                                                                                              |                |

| 매일 성경 강독       |                                                                                                                                                                                                                                                                                                                                                                                                                                                               |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 | 날짜 : 2월 2일 |
|----------------|---------------------------------------------------------------------------------------------------------------------------------------------------------------------------------------------------------------------------------------------------------------------------------------------------------------------------------------------------------------------------------------------------------------------------------------------------------------|---------------|------------|
| 찬양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통일 찬송가 397장)                                                                                                                                                                                                                                                                                                                                                                                                                            |               |            |
| 통독             | 사무엘하 10장                                                                                                                                                                                                                                                                                                                                                                                                                                                      |               |            |
| 본문 내용          |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하논의 부친상에 조문하기 위해 조객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를 오해한 하논은 다윗의 신복들에게 수치를 행합니다. 그 연고로 이스라엘과 암몬-아람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갑니다. 아람은 오히려 다윗에게 굴복하고 화친하게 됩니다.                                                                                                                                                                                                                                                                                          |               |            |
| 생각해보기          |                                                                                                                                                                                                                                                                                                                                                                                                                                                               |               |            |
| 1              | <p>암몬.아람 연합군에 대한 승리</p> <p>(1) 과거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호의를 입었던 다윗이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위문 사절단을 파송했는데 암몬 자손이 이를 오해하여 그들에게 모욕을 가함</p> <p>(2) 다윗의 분노를 산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대항하기 위해 암몬.아람 동맹군을 결성했고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내 2차례에 걸쳐 암몬.아람 연합군을 격퇴시킴</p> <p>(3) 이웃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베푸는 호의를 믿지 못한다.</p> <p>(4)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인격을 기르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p>                                                                                                                          |               |            |
| 핵심 단어          | <p>이렇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 이 문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람과 암몬의 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이는 본장이 암몬과의 사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암몬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된 내용이 아람과 암몬의 연대를 끊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보건대 14절에서 암몬이 원상 복귀되었던 것처럼 보인 것은 결코 전쟁의 최종 결과이거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상 복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암몬은 국제 사회에서 군사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이어 군사적으로 고립된 암몬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접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한다.</p>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 | 날짜 : 1월 30일 |
| 찬양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통일 찬송가 217장)                                                                                                                                                                                                                                                                                                                                                                                                                                                                                                                                                                |              |             |
| 통독             | 사무엘하 7장                                                                                                                                                                                                                                                                                                                                                                                                                                                                                                                                                                                           |              |             |
| 본문 내용          | <p>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이 확고히 되자 다윗은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원을 내비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받아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자손이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그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복을 구합니다.</p>                                                                                                                                                                                                                                                                 |              |             |
| 생각해보기          |                                                                                                                                                                                                                                                                                                                                                                                                                                                                                                                                                                                                   |              |             |
| 1              | <p>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p> <p>(1)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선지자 나단과 상의함</p> <p>(2)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그의 후계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언약하심</p> <p>(3)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p> <p>(4)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p>                                                                                                                                                                                                                                                                             |              |             |
| 핵심 단어          | <p>7: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직접 계시하시지 않고 나단을 경유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신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강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다윗 혼자서 신정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일꾼들과 협력하여 신정 왕국을 이루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 경솔히 다윗의 의견에 찬성한 나단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나단을 사용하신 것은 선지자가 멸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다면 선지자마다 계시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조언을 하였던 나단 선지자가 경멸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멸시받음으로 당신의 영광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건립에 있어 크게 기여할 나단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셨다</p>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매일 성경 강독       |                                                                                                                                                                                                                                                                                                                                                                                                                                                                                                                                         | 이스라엘 최고 경영자 다윗 | 날짜 : 1월 31일 |
|----------------|-----------------------------------------------------------------------------------------------------------------------------------------------------------------------------------------------------------------------------------------------------------------------------------------------------------------------------------------------------------------------------------------------------------------------------------------------------------------------------------------------------------------------------------------|----------------|-------------|
| 찬양             |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통일 찬송가 390장)                                                                                                                                                                                                                                                                                                                                                                                                                                                                                                         |                |             |
| 통독             | 사무엘하 8장                                                                                                                                                                                                                                                                                                                                                                                                                                                                                                                                 |                |             |
| 본문 내용          |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메덱암마를 빼앗습니다. 또 모압을 쳐서 키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려 조공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 고을을 쳐서 얻은 많은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공과 의로 다스립니다.                                                                                                                                                                                                                                                                                                                                                                        |                |             |
| 생각해보기          |                                                                                                                                                                                                                                                                                                                                                                                                                                                                                                                                         |                |             |
| 1              | 다윗의 정복사업과 행정 조직<br>(1)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및 아람, 에돔 등 주변국을 쳐서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거둠<br>(2) 다윗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는 등 행정 조직을 확립해 감<br>(3)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가 되도록 하자.                                                                                                                                                                                                                                                                                                                            |                |             |
| 핵심 단어          | 8:6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 ‘이기게 하시니라’로 번역된 ‘요차으’는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와으’ 동사의 사역형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사악한 곳에서) 건져내다’란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로 번역된 ‘데콜 아쉐르 할라크’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란 뜻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란 뜻을 지닌 ‘임마누엘’이란 의미와도 통한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과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도 사악함이 다윗과 함께할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다윗과 이웃 나라와의 싸움은 진리와 악의 싸움을 세상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은 사역형 동사와 더불어 주어를 ‘여호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매일 성경 강독       |  | 신인의 약속 신실한 이행                                                                                                                                                                                                                                                                                                                                                                                                                                                                                                                                                                                                                                                                                                                                                                                            |  | 날짜 : 2월1일 |  |
|----------------|--|----------------------------------------------------------------------------------------------------------------------------------------------------------------------------------------------------------------------------------------------------------------------------------------------------------------------------------------------------------------------------------------------------------------------------------------------------------------------------------------------------------------------------------------------------------------------------------------------------------------------------------------------------------------------------------------------------------------------------------------------------------------------------------------------------------|--|-----------|--|
| 찬양             |  | 오 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찬송가 393장/통일 찬송가 447장)                                                                                                                                                                                                                                                                                                                                                                                                                                                                                                                                                                                                                                                                                                                                                                  |  |           |  |
| 통독             |  | 사무엘하 9장                                                                                                                                                                                                                                                                                                                                                                                                                                                                                                                                                                                                                                                                                                                                                                                                  |  |           |  |
| 본문 내용          |  |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 절름발이인 므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발을 다 돌려주고 왕자처럼 대접하며, 시바의 집의 모든 자로 그의 종이 되게 합니다.                                                                                                                                                                                                                                                                                                                                                                                                                                                                                                                                                                                                                                                                                       |  |           |  |
| 생각해보기          |  |                                                                                                                                                                                                                                                                                                                                                                                                                                                                                                                                                                                                                                                                                                                                                                                                          |  |           |  |
| 1              |  | 므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br>(1)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기억하여 사울의 유족을 찾기 위해 수소 문함<br>(2) 마길의 집에 은거해 있던 므비보셋을 데려와 안심시키고 위로함<br>(3)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옛날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줌<br>(4) 성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  |
| 핵심 단어          |  | 9:1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 히브리어 ‘헤셰드’는 언약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헤셰드’를 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언약 속에서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신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나단을 인하여’라는 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는 상거래에서도 쓰이는 표현으로(암 8:6) 어떤 물건에 대한 평가에 따른 지불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는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것으로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본문은 일찍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삼상 20 : 12-16)에 근거하여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에 인자함을 영영히 끊지 말아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한글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입장을 고려해서 ‘베풀리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본래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신분적 우위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는 자신에게 부과된 ‘헤셰드의 의무를 행하리라’는 다윗의 의지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사람에게’로 번역된 ‘임모’도 직역하면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상호 평등한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이다. 이처럼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어떤 호의를 베풀다는 우월 의식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여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행한다는 책임 의식으로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을 찾았음을 보여준다, |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
| 기도제목           |  |                                                                                                                                                                                                                                                                                                                                                                                                                                                                                                                                                                                                                                                                                                                                                                                                          |  |           |  |